

도시형 한옥의 안마당 사용실태에 관한 기초적 조사

-서울 북촌마을을 중심으로-

A Study on a Application of the Inner Court in Urban Traditional Housing

- Focused on the Bukchon Village, Seoul -

박 현 옥* 김 현 아** 백 혜 선*** 이 상 미****
Park, Hyun-Ok Kim, Hyun-Ah Baik, Hye-Sun Lee, Sang-Mi

Abstract

"Urban traditional housing" means a type of urban housing which retains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houses for ordinary people. It is a form of housing created in the process in which traditional Korean ways of life are applied to swift modernization.

In Korea's traditional housing, the "court" functioned as a living space that promoted family bonding. The space of the court still remains in the urban traditional housing. However, rapid popularization of the westernized housing form, i.e., apartments, resulted in standardization and westernization of our housing and living patterns, and as a result, the court in urban traditional housing came to lose its original meaning.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residents of urban traditional housing. By studying them, this research aims, firstl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inner court, secondly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the residents' consciousness of the inner court and their use of the space, and ultimately to find various possible forms of our future housing.

For this research, twenty six houses in the Gahoe-dong area in which urban traditional houses are densely built up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inner court in current urban traditional housing is a space existing inside a house but directly exposed to outer air at the same time. It is a private but shared space. It contributes to forming a pleasant atmosphere by facilitating ventilation and providing sunlight. In addition, it is a living space that actively reflects the Korean living style that values family life.

키워드 : 도시형 한옥, 안마당, 개조, 북촌

Keywords : Urban traditional housing, Inner court, Bukchon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시간의 흐름과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주거의 의미에 대한 거주자들의 개념도 변하고, 변화하는 거주자들의 주거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적 시도와 대안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비록 주거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여도 그 안에 담겨지는 근본적인 삶의 내용은 이어진다. 즉 주거공간은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주자들의 생활내용과 축적된 삶의 문화를 수용하는 공간이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주거공간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형 한옥은 과거 전통 민가의 특성을 이어받아 자생적으로 발전한 도시의 주택유형으로, 단기간 동안 급속히 진행된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당시 상황에 적합하게 수용해 온 주거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름대로 정체성 있는 우리 주거의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도시형 한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과거 우리 주거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가능한 우리 주거의 모습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의 전통주택에서 마당이라는 공간은 매개체로서 주택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인 마을, 길들이 소통하도록 하였다. 특히 서민주택에서의 마당 공간은 필요에 따

*정회원, 청운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부교수, 이학박사

**정회원, 주성대학 실내디자인과 전임강사

***정회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정회원,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외래교수

라 가족들만의 사적인 공간이나 가사작업 공간, 때로는 이웃들과 어울려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는 곳으로 사용되는 등 실로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내용을 담아내는 다목적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형 한옥에서의 안마당은 평면구조상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으로 외부와 내부, 내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과 가사작업이 이루어지고 가족들의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그러나 서구화된 생활관습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과 획일화된 주거형의 양산으로 인해, 우리 생활내용을 충실히 수용해주던 마당공간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거주자들의 필요에 의해 변경되고 재탄생되어 본래의 역할보다는 각 주거마다 다르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의 전통성, 친환경성, 주거환경의 개선 보존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획일화된 형태로 대량으로 공급되었던 공동주택도 점차로 거주자들의 세분화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안마당 공간에 대한 거주자 의식과 공간사용행태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현 시점에서의 안마당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미래주거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본 연구가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도시형 한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도시적 측면으로 본 가로와 주거지와의 관계, 건축적 공간구성, 내부 공간의 구성 및 생활상의 변화에 따른 내부 공간 개조 등에 관한 연구들로서, 공간사용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현장방문을 통한 실측, 거주자 심층면접 등의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도시형 한옥에서의 안마당 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식 및 공간이용행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현재 도시형 한옥 거주자들의 안마당에 대한 인식과 개조행위, 사용행태간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도구를 이용한 조사방법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북촌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정해져 지역주민들의 거주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주거에 관한 경제적인 가치를 떨어뜨려 지역주민들의 이주와 무분별한 개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00년 북촌 가꾸기 사업이 계획되어 진행되면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한옥의 개조, 재건축 및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한옥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옥의 진정한 의미와 각 공간에 관한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옥 공간구성에 있어 중심 역할을 가진 안마당이라는 공간의 연구를 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은 도시형 한옥 밀집지역인 가회동 지역을 중

심으로 하여 인근 삼청, 계동 지역 소재의 한옥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면접조사를 통해 총 26호를 조사하였으며, 세대별 면접시간은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¹⁾ 조사내용은 거주자 일반사항, 주택관련 일반사항, 한옥생활 만족정도, 주택개조 여부, 안마당 공간 사용실태 및 개조여부, 거주경험 및 향후 거주계획 등을 중심으로, 8.1-18일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2. 도시형 한옥 안마당의 의미와 기능

2.1. 주거 공간에서의 마당의 의미

마당의 어원은 '마'는 맛·맡·물과 관련되어서 땅의 의미로 사용되고, '당'은 장(場), 즉 장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마당은 땅에 있는 장소인 외부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활동을 담는 기능의 의미로도 해석된다.²⁾ 마당은 흙(土床)으로서 잔디 없는 운동장처럼 잘 다져지고 반드시 물매가 있어서 문과 반대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계획되어 있다.³⁾

전통주택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공간이 구성되고 각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마당이 형성되었는데, 남녀유별(男女有別)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가 구성되고 이에 따른 안마당⁴⁾과 사랑 마당이 형성되었고, 안채와 사랑채가 안마당을 감싸고, 신분제도에 따라 그 외부로 사랑마당이 행랑채에 둘러싸고 있었으며, 조상숭배 정신에 따른 사당 공간이 필요하였으며 여기에 사당마당이 형성되었다. 이 중 남성적인 공간으로서의 사랑마당이 외부적인 조경용이라면, 외부로부터 폐쇄적인 안마당은 실제 생활 공간으로 통로로서의 동선의 역할과 수도설비 및 화단이 있는 옥외 여성의 공간이다. 이러한 유교적 영향으로 주생활의 관습에 변화가 생기고 위계와性に 따라 격식을 갖추어 뒷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바깥마당, 별당마당, 사당마당, 동네마당 등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격식을 크게 중요시 할 필요가 없거나 서민주택의 경우는 하나의 마당과 뒤안 정도가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형 한옥의 마당은 도입 초기에는 양반주택을 모방하여 사랑마당, 진입마당, 안마당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대지면적의 축소화로 안마당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주택에서 일반적인 마당의 기능이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

1) 한옥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설문조사대상 섭외 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해당 지역 거주자의 소개를 받아서 조사대상을 섭외하거나 직접 세대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총 70세대 방문하여 26세대를 조사하였다. 통계분석과정에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26개의 설문사례는 현재 한옥 거주자들의 안마당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우경국, 조선시대주택 마당에 관한 연구, 환경과 조경, 1985. 11, p.89

3) <http://100.naver.com//100.phpid=58113>

4) 안마당이란 안채가 딸린 마당(private yard), 둘러싸인 안에 있는 마당(inner court)로 정의하고 있음(김봉렬, 방 밖의 방, 건축과 환경, 1986. 2, p.70)

로 동선을 연결하는 통로, 채광이나 통풍, 작업 및 생산 공간, 휴식 공간, 행사 수행 등의 용도로 복합적으로 사용⁵⁾되었다면, 근대화를 거치면서 대체적으로 면적이 축소된 도시형 한옥의 안마당의 기능은 대문에서 주택내부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이고, 실내에 들이기 곤란한 외부인 방문에 대해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며 도시화된 주거지 구조 속에서 확보된 정원 공간, 취미 공간 및 여유 공간으로서 완충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갖는 환경조절 공간⁶⁾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2.2 도시형 한옥 안마당의 공간 변화

서구식 주생활 양식이 유입되어 소위 양옥이라고 불리는 주거 형태의 보급은 전통주택의 특성을 지닌 도시형 한옥을 변화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서구식 주거는 주생활의 대부분을 내부공간에서 해결 가능한 주거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형 한옥의 주거공간도 변화 되었다. 안마당 공간의 변화는 의형적으로 내부공간의 변화에 따른 안마당 공간의 협소 및 소멸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내부공간의 변화는 첫째, 주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한 거주자들의 생활방식의 변화이며 이것은 외부에서 행해지던 가사일의 대부분을 내부에서 가능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일러, 수세식화장실 설비 등 설비의 발전은 변화에 가속을 가했다. 둘째, 주생활양식의 변화와 경제력 향상은 주생활을 좌식에서 입식생활로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필요가구수가 증가하였고, 경제력의 향상은 가구의 구입이 가능하게 하였고, 좌식생활에 필요한 가구에 따른 공간의 크기에 입식생활로 증가된 가구를 첨가하게 되어 내부공간의 협소를 가져왔다. 셋째, 오랜 기간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게 되면서 자녀가 성장하여 개인공간을 필요로 하거나 결혼을 하여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등 가족주기에 변화가 생기면서 내부공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부공간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면적 확장 방법으로, 주어진 공간 안에서의 해결책으로 내부공간을 마당 쪽으로 확장, 마당의 일부를 내부로 개조하는 부분 내실화, 마당을 완전히 내부공간으로 개조하는 완전내실화⁷⁾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안마당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내부로 옮겨짐에 따라 마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던 안마당 본래의 기능들은 점차 통로의 기능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안마당을 단순히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려는 대체공간으로 인식하여 보도블록과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도시형 한옥의 개조특성을 살펴보면 안마당 바닥마감을 개·보수

이전의 마감 재료인 기존의 구들, 잔디, 자갈, 목재, 후로링으로 다시 마감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통 한옥에서의 마당공간의 기능을 되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주생활공간으로서의 안마당의 특성과 의미⁹⁾

현재 공동주택은 최대한의 주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내 공간 중 유일하게 외기에 면하는 발코니 공간을 포함하여, 모든 공간을 실내화 하는 것이 일반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외부공간의 연계성, 공간체협의 다양성, 정서적 효과 측면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주택의 폐쇄적인 실내공간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생활공간으로서 전통주택의 안마당 공간이 갖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점을 적절히 수용,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 매개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안마당

안마당은 실내에서 외부로 향해 열려있는 공간으로 공간의 흐름을 내부에서 머무르지 않고 비어있는 외부로 분출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각 실과 실, 실과 안마당의 통로개념 뿐만 아니라 안마당과 외부와의 내외조절 공간과 외향성을 촉진시키는 매개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공간은 심리적으로 주택 내·외부, 내부 각 실 간의 완충적 공간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공간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공간으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2) 자연생활공간으로서의 안마당

전통주택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자연과의 융합은 단순히 자연을 조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 자연요소를 내부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주거 속의 안마당은 과거의 단순한 옥외작업공간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이 자연과 쉽게 접함으로써 유발되는 생물학적 쾌적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폐쇄적인 아파트 구조에 비해 자연 생리적 순환구인 안마당이 있는 홑집으로 구성됨으로써 채광, 통풍, 환기, 온도, 습도 조절이 용이하여 인체에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3) 연속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안마당

안마당과 대청, 실내로 연결되는 시각의 연속적인 흐름은 ㄷ형 주택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안마당의 빈 영역으로 외부이지만 실내생활이 연장되는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준다. 따라서 폐쇄적인 공동주택과 달리 한옥의 실내에 있는 거주자는 안마당을 향해 시선 축을 연장하면서 공간감이 확대되고, 이러한 생활시선의 연장은 안

5) <http://100.naver.com/100.phpid=58113>

6) □자형 주택구조에 싸여 있는 안마당은 건물구조에 의해 외부온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내외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겨울철 외기온도가 일출과 일몰에 의해 큰 폭으로 변화하는데 반해 마루와 안마당의 온도 변화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동 외, 한옥 안마당의 계절별 건구온도 분포 및 상관도에 관한 연구, 설비공학논문집, 2003, 제15권 6호)

7) 송미배, 금요찬, 박용환, 도시형 한옥의 내외부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4호 통권150호, 2001.4

8) 양지민, 도시형한옥의 개·보수 양상과 그 적정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2.12. p.74-75. 북촌에 있고 서울시 한옥등록완료이며 주거용도로 개보수 완료된 37채, 신고 불완료 3채로 총 40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개·보수를 통한 마당의 변화는 유지 8(20%), 회복 12(30%)로 총50%를 차지하였고, 부분 내부화 유지 18(45%), 완전 내부화 2(5%)로 나타났다.

9) 조성진, 도시 한옥의 주생활양식 사례조사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3. 6, p.75-114

마당과 대청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4) 중심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안마당

도시형 한옥에 있어 가장 강한 공간구성 축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형 한옥에서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모든 공간이 열려있는 구심적 구조를 갖는다. 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택내외의 각 공간간의 원활한 연계성 및 시각적 개방감은 각 실에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게 하고 정신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하여, 나아가 이웃과 원활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기능이 가능하다.

3.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의식조사 결과

3.1. 조사대상 일반사항

조사대상 한옥은 총 26호 한옥 중 약 70%(19사례)가 가회동에 위치하고 있고, 삼청동 6사례(23%)이며, 계동 1 사례이다.

조사대상가구들의 남편 평균나이는 51.9세, 부인은 52.5세이며 만자녀의 평균 나이는 21.6세, 막내의 평균 나이는 17.8세이다. 평균 가족수는 3.6인이며, 희망하는 주택 규모는 39.1평이다.

표 1. 조사대상 일반사항

항목	세부내용	남편(f/%)	부인(f/%)
학벌	고졸이하	2(7.7)	19(73.1)
	대졸	4(15.4)	3(73.1)
	대학원졸	4(15.4)	4(15.3)
	무응답	16(61.5)	0
직업	자영업	1(3.8)	0
	서비스직	1(3.8)	0
	판매직	1(3.8)	0
	사무직	4(15.4)	1(3.8)
	전문직	1(3.8)	1(3.8)
	주부	0	12(46.2)
	기타 및 무응답	18(69.2)	12(46.2)

3.2. 주택특성 및 거주관련사항

(1) 주택특성 및 거주경험

평균 거주년수는 1-10년이 9사례(34.6%), 11-20년이 10 사례(38.5%), 21년 이상이 7사례(26.9%)로, 평균 거주년수는 15.6년이다. 건축년도는 1910년대가 2사례(7.7%), 1920년대가 4사례(15.3%), 1930년대가 18사례(69.2%) 그리고 1980년대가 2사례(7.7%)로 나타났다. 다시 1930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보면 76.9%가 1930년대 이후에 건축되었다. 특히 1980년대라고 응답한 두 사례는 대대적 보수를 한 시기로 간주하여 1930년 이후의 사례에 포함하였다. 조사대상 한옥의 유형은 ㄷ자형이 17사례(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ㄱ자형, ㄷ자형, ㄷ자형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ㄷ자형은 단 한 사례로, 한옥의 유형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ㄷ자형과 그 외의 유형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거주자의 이전 주택 유형은 한옥이 12(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6(23.1%),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각각 4(15.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현재 한옥 거주자들은 약 70%가 단독 또는 한옥에서 거주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 주택특성관련 일반사항 N=26

항 목		빈도(%)	항 목		빈도(%)
위치	가회동	18(69.2)	한옥 유형	ㄷ자형	3(11.5)
	삼청동/계동	8(30.8)		ㄷ자형	17(65.4)
건축 년도	1929년 이전	6(23.1)		ㄱ자형	2(7.7)
	1930년 이후	20(76.9)		ㄱ자형	3(11.5)
거주 년수	1-10년	9(34.6)		ㄷ자형	1(3.8)
	11-20년	10(38.5)		계	26(100)
	21년 이후	7(26.9)			

3.3. 한옥생활에 대한 만족도

(1) 주택특성과 주거만족도

분석결과 전반적인 거주 만족도는 3.96점(5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주택위치, 건축년도, 거주년수, 주택유형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다.

이를 다시 각 변인별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차이검증과 분산분석을 하였다. 즉, 주택 위치를 가회동과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가회동은 3.94점, 그 외 지역은 4.0점으로 나타났다. 거주년수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즉 10년, 20년 그리고 21년 이상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21년 이상(4.29점), 1-10년(3.89점), 그리고 11-20년(3.80점)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택유형도 ㄷ자형의 경우가 4.06점, 기타가 3.78점으로 나타나고 건축년도를 1930년을 기준으로 한 결과 이전에는 4.17점, 이후에는 3.90점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 한옥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현재 한옥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이유는 다음<표 3>과 같이 8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말해주는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9170으로 나타나 문항 내용간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동일한 개념을 독립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크론바하의 알파값으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탐색적인 연구에서는 알파값이 .60이상, 기초연구에서는 .80 그리고 응용연구에서는 .90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60이상이면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한옥 생활에 대하여 만족하는 이유는 독립적인 마당(4.38), 거주환경의 쾌적성(4.15), 친환경적인 마감재료 사용(4.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마당 공간설치, 한옥주택의 거주환경 쾌적성에 만족하고 것으로 보인다.

표 3. 한옥생활 만족이유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아파트에 비해 독립적인 우리집 만의 마당이 있어서 좋다	4.38	1.17
자연통풍, 채광 등 거주환경이 쾌적하다	4.15	1.22
친환경적인 마감 재료를 사용해서 건강에 좋다	4.08	1.13
아름다운 전통주택의 외관이 좋다	3.81	1.27
가족끼리 모여서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3.73	1.25
전통주택의 유지계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3.69	1.29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공간을 통합해서 넓게 사용	3.31	1.54
창고 등 수납공간이 많아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3.08	1.54

* 5점 만점 기준



사진 1. 마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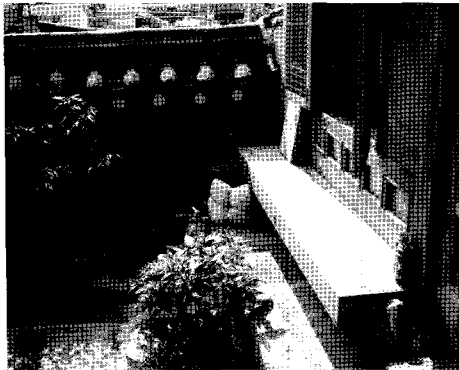


사진 2. 뒷마루와 연결된 안마당

(3) 한옥생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이유

현재 한옥 생활에 대한 불만족도는 <표 4>와 같이 6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문항간의 내적일치도를 말해주는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9160으로 나타나 문항 내용간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옥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주차와 관리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등이 큰 문제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겨울철 추위와 이동시 불편함과 방법문

제에 대해서도 평균값 2점 이하로 불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이러한 점은 현대 도시생활에 적합한 도시형 한옥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4. 한옥생활 불만족 이유

생활상 불편한 점	평균	표준편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1.00	1.50
관리하기에 불편하다(하자보수, 냉난방 문제 등)	1.15	1.38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가 어렵다	1.46	1.75
겨울철에 다소 춥다고 느낄 때가 있다	1.50	1.77
집안에서 이동시 불편하다(신발을 신고 이동해야할 때가 있다)	1.65	2.00
방법문제가 염려 된다	1.81	2.06

(4) 한옥생활 불만족 이유의 요소별 차이검증

한옥 생활 불만족에 관한 이유를 주택 유형, 지역, 거주연수를 분석요소로 하여 각 요소 간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주택의 유형은 ㄷ자형(ㄷ자형포함) 20사례와 기타 유형(일자형, ㄱ자형) 6사례로 나누어 생활상의 불만족 요인과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안에서 이동시 불편하다”가 .001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한옥 생활 불만족 이유의 요소별 차이

분석 요소	주택유형별 차이		
	기타형	ㄷ자형	p값
불만족 요인			
관리 불편(하자보수, 냉난방 문제 등)	.78	1.35	.042*
방법 문제 염려	1.44	2.00	.620
겨울철 한기	1.44	1.53	.959
집안에서 이동시 불편	.89	2.06	.001***
주차 공간 부족	.44	1.29	.007**
가족 간 프라이버시 유지 어렵다	1.00	1.71	.079
분석 요소	지역별 차이		
	가회동	그외지역	p값
불만족 요인			
관리 불편(하자보수, 냉난방 문제 등)	1.06	1.69	.014*
방법 문제 염려	2.17	1.89	.373
겨울철 한기	1.94	1.39	.033*
집안에서 이동시 불편	1.95	2.20	.354
주차 공간 부족	1.59	1.36	.809
가족 간 프라이버시 유지 어렵다	1.60	2.10	.113
분석 요소	거주연수별 차이		
	30년미만	30년이상	p값
불만족 요인			
관리 불편(하자보수, 냉난방 문제 등)	1.12	1.22	.353
방법 문제 염려	1.76	1.89	.283
겨울철 한기	1.41	1.67	.176
집안에서 이동시 불편	2.06	.89	.017*
주차 공간 부족	1.24	.56	.178
가족 간 프라이버시 유지 어렵다	1.76	.89	.012*
유의 수준	* .05 ** .01 *** .001		

그 다음으로 주차 공간, 관리상의 문제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공간과 관리상의 문제는 주택의 유형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균값이 2.0 이하여서 설문문항 6가지 모두에 대하여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ㄷ자형 주택이 일자형이나 ㄱ자형 주택보다는 생활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별로 구분해서 가회동 지역의 18사례와 그 외 지역의 8사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면, 가회동 지역의 한옥은 관리문제가, 그 이외 지역은 겨울철에 보다 더 춥다고 느끼는 점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주기간을 30년을 기준으로 불만족 차이를 조사해 본 결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05 수준에서 '집안 이동시 불편하다'와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 지키기가 힘들다'에 있어서 평균값이 모두 .89로 나타나, 30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의 2.06과 1.76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5) 북촌 지역 거주 사유 및 향후 이주 사유

조사대상 응답자의 76.9%가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단지 6세대(23.1%)만이 앞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 지역을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33.3%), 전통한옥이어서(20.3%), 직장과의 거리(20.3%)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주차문제, 주변편의시설 문제는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며 동시에 만약 이사를 가는 경우,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 한옥주거지역에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주차문제, 주택의 노후화, 전망, 주변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가장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북촌지역 선택이유 및 향후 이주사유

항 목	이사 온 이유	이사 갈 이유
자연환경	18(33.3%)	2(10%)
전통한옥이어서	11(20.3%)	0(0%)
직장과의 거리	11(20.3%)	0(0%)
교통	6(11.1%)	1(5%)
가격	2(3.7%)	0(0%)
교육환경(학교, 학교 등)	4(7.4%)	2(10%)
주변 편의시설	1(1.9%)	2(10%)
전망(조망) 관련 문제	1(1.9%)	5(25%)
주차문제	0(0%)	4(20%)
집이 오래되고 낡아서	0(0%)	4(20%)

4. 안마당 사용 실태에 관한 분석

4.1. 한옥 개조유무와 개조부위

한옥 유형에 관계없이 총 26사례 중에서 22사례인

84.5%가 개조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부엌과 화장실(40.9%)을 가장 많이 개조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체 개조, 방, 지붕 순이었다. 2회 개조한 경우는 총 6사례로 '부엌과 화장실'(33.3%), '방과 지붕'(33.3%) 그리고 '마당과 전체 개조'가 각 1사례로 나타났다.

표7. 한옥 개조유무 및 개조부위

개조부위	1회 개조(f/%) N=16	2회 개조(f/%) N=6
마당	0(0.0)	1(16.7)
부엌과 화장실	7(43.8)	2(33.3)
보일러	1(6.3)	0(0.0)
전반적인 개조	6(37.5)	1(16.7)
문, 방, 지붕	2(12.5)	2(33.3)

4.2. 안마당 개조 이유

현재 거주하는 한옥의 마당을 개조한 이유를 16개 문항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16개 문항간의 내적일치도를 말해주는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9510으로 나타나 내용 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당을 개조한 이유로는 집안으로 햇빛과 바람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가 평균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생활행위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안마당 공간을 개조하고 있으나, 이전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안마당을 폐쇄적으로 개조했던 것과 달리, 다시 주택내부로의 충분한 채광조건 확보와 자연통풍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안마당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주자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개조이유를 요인 분석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5가지 요인으로 나타나, 주로 안마당 공간을 가사보조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조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위생시설 및 쓰레기 보관을 위해서 개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안마당 개조이유

개조이유	평균	표준편차
집안으로 햇빛, 바람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4.15	1.16
휴식장소	3.96	1.43
너무 집이 낡아서	3.77	1.11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3.54	1.53
세탁, 건조, 김장 등 가사작업	3.35	1.26
간단한 운동 등 취미생활을 위해	3.31	1.38
채소를 키우기 위한 장소	3.31	1.52
통행로	3.27	1.56
손님접대, 가족모임을 위한 장소 마련을 위해	3.23	1.48
자녀들의 놀이	3.08	1.65
창고 등 외부 수납공간이 필요해서	2.81	1.50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해서	2.58	1.42
쓰레기, 폐품 보관 장소가 필요해서	2.54	1.53
집안에서 눈, 비를 맞기 싫어서	2.46	1.36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	2.35	1.62
개인 공간(방의 개수)이 부족해서	2.15	1.32

표 9. 안마당 공간 개조이유 요인분석결과

요인	개조이유	고유치	설명력
가사보조 및 휴식 공간	세탁, 건조, 김장 등 가사작업	.869	38.3%
	휴식장소	.867	
	손님접대, 가족모임을 위한 장소 마련을 위해	.793	
	채소를 키우기 위한 장소	.769	
	통행로	.750	
	간단한 운동 등 취미생활을 위해	.749	
	창고 등 외부 수납공간이 필요해서	.649	
위생시설 및 쓰레기보관	개인 공간(방의 개수)이 부족해서	.620	16.8%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해서	.838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	.625	
	쓰레기, 폐품 보관 장소가 필요해서	.593	
놀이 공간	집안에서 눈, 비를 맞기 싫어서	.541	11.7%
	자녀들의 놀이	.583	
정원 공간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756	8.2%
햇빛과 통풍	집안으로 햇빛, 바람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621	6.0%

4.3. 안마당의 용도 및 장·단점

현재 안마당의 사용 용도로는 남편의 경우는 운동과 휴식(40%)이 자녀의 경우 운동과 놀이(80%) 그리고 부인의 경우는 청소와 세탁 등이 70%로 그 가구구성원별로 사용용도 차이가 있다.

표 10. 안마당 공간의 용도

용도	남편(빈도/%)	부인(빈도/%)	자녀(빈도/%)
꽃과 채소 가꾸기	4(26.7)	3(15.0)	1(6.7)
운동과 휴식, 놀이	6(40.0)	2(10.0)	12(80.0)
모임	1(6.7)	0	0
개 키우기	1(6.7)	0	1(6.7)
식사	2(13.3)	1(5.0)	0
청소, 건조, 세탁	1(6.7)	14(70.0)	1(6.7)



사진 3. 안마당 공간의 용도

마당 공간의 장점을 순위별로 3가지를 질문 한 결과 1 순위로는 50%의 응답자가 “시각적인 개방감과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용이하며,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다”, 2순위로는 ‘꽃과 채소를 키울 수 있다’를 마당의 장점으로 선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마당공간의 장점으로 시각적 개방감(34%), 김장 및 건조장소(15.1%), 채소와 꽃밭 그리고 놀이와 운동 공간(13.2%)을 들고 있다. 마당공간의 단점으로는 청소 불편(45%), 출다(40%) 그리고 수납공간의

부족(15%)을 선택하였다.

표 11. 안마당 공간의 장점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빈도(%)	빈도(%)	빈도(%)	
청소가 용이하고 물쓰기가 좋다	1(5.0)	2(11.1)	3(20.0)	6(11.3)
김장 및 건조장소로 좋다	2(10.0)	4(22.2)	2(13.3)	8(15.1)
시각적으로 개방감, 햇빛, 통풍에 좋다	10(50.0)	3(16.7)	5(33.3)	18(34.0)
꽃과 채소를 가꿀 수 있다	2(10.0)	5(27.8)	0	7(13.2)
휴식, 사색 및 대화를 나눌 수 있다	3(15.0)	2(11.1)	0	5(9.4)
각종 놀이와 운동을 할 수 있다	2(10.0)	2(11.1)	3(20.0)	7(13.2)
개를 키울 수 있다	0	0	1(6.7)	1(1.9)
바비큐파티 및 식사를 할 수 있다	0	0	1(6.7)	1(1.9)
계	20	18	15	53

표 12. 안마당 공간의 단점

항 목	1순위	2순위	계
	(빈도/%)	(빈도/%)	
마당이 있어 출다	5(35.7)	3(50.0)	8(40.0)
청소가 불편하고 벌레와 이끼가 발생 한다	7(50.0)	2(33.3)	9(45.0)
수납공간이 부족하다	2(14.3)	1(16.7)	3(15.0)
계	14	6	20

현재 한옥 거주자들은 대체로 한옥거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이 북촌지역을 선택한 이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차 공간 부족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고층주거에 비해서 주택에서의 전망이 안 좋은 점 등에서는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도시 생활에서 한옥거주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안마당 공간에 대한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택개조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85%정도가 주택을 개조한 경험이 있고, 주로 노후 된 부엌, 화장실 등 전반적으로 생활편의성 확보를 위해 낡은 주택을 개조하는 차원에서 개조가 이루어진 편이다. 마당의 경우에는 일부주택의 경우에는 협소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택내부공간화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주택에서 자연환기, 채광효과, 휴식 공간, 외기에 면할 수 있는 거주자의 사적 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개방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마당이 청소하기에 불편하고 추운 것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느끼고 있다. 안마당 공간의 주된 용도는 거주자의 운동, 휴식이나 취미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사작업 공간 용도로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도시형 한옥의 공간사용 실태를 안마당이라

는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살펴보고, 안마당 공간의 과거와 현재의 사용을 비교하고 의미를 재해석하여 이를 미래 주거유형의 공간구성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촌지역 도시형 한옥의 거주자의 거주기간은 평균 15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주차공간부족, 주변편의시설 부족 등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독립적인 안마당을 통해 자연환경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 환경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마당은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어렵고, 겨울철에 추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선호 요인으로는 자연과의 교류, 취미활동 공간, 휴식 공간, 가사작업 공간 확보를 이유로 들고 있었다. 이는 과거에 부족한 주택면적확보를 위해서 마당 상부에 지붕을 덮어 실내공간으로 사용했던 거주자들도, 다시 안마당 공간을 통풍, 정원조성, 채광 확보 등을 위해 개방적인 공간으로 개조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안마당 공간 선호이유들은 현재 공동주택이라는 도시형 주거공간이 가질 수 없는 공간특성으로 현대인들이 친환경 혹은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 도시형 한옥의 안마당의 이러한 공간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도시형 한옥에서 안마당 공간은 주택내에서 직접 외기에 면하는 사적인 외부공용공간으로서, 주택내부로의 원활한 자연환기, 일조량의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족공동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적 주거생활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생활공간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마당이 가지는 기능을 요약해 보면 다양한 가족들의 생활을 수용해주는 생활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각 공간들 간의 연계성을 확보해주고, 동시에 거주자들에게는 정서적 측면의 안정과 함께 다양한 공간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즉 안마당은 주택의 안과 밖, 각 실 간을 연결해 줌으로서 공간 간의 거리조절 기능을 갖고 있으며, 시선축을 주택내부에서 외부공간으로 연장시켜 공간감을 확대시켜주고, 공간구성상 주택의 중심에 위치하여 각 공간 간의 통합을 이룬다. 이러한 형태학적 특성은 공간감의 확대와 물리적, 심리적 거리 조절을 통해 거주자, 이웃,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형성이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연환경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향상과 함께 생물학적 쾌적성(채광, 통풍, 환기, 온·습도조절)과 자연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지속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이 북촌지역에 밀집된 도시형 한옥은 현대 도시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적응하면서 과거 한옥주택이 갖고 있던 장점을 그대로 살린 주택유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도시주택유형의 대안으로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정서적, 물리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마당 공간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대 생활에 적합한 주

거공간으로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도시형 한옥의 주거생활 및 공간이용특성, 개조특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자료의 축적을 통해, 향후 미래의 주거 공간 계획시 안마당 공간을 비롯한 전통 한옥주택의 한국적 계획요소를 현대 주거생활에 적합하도록 변용,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서울특별시,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2001
2. 정석,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I)-북촌 가꾸기 사례연구』, 2000
3. 송인호, 도시형 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0
4. 양지민, 도시형 한옥의 개·보수 양상과 그 적정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2. 12
5. 조성진, 도시 한옥의 주생활양식 사례조사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3. 6
6. 이주동 외, 한옥 안마당의 계절별 건구온도 분포 및 상관도에 관한 연구, 설비공학논문집, 제15권 6호, 2003
7. 송미배, 금요찬, 박용환, 도시형 한옥의 내·외부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7권 4호 통권 150호, 2001. 4
8. 김봉렬, 『방 밖의 방』, 건축과 환경, 1986. 2
9. 우경국, 『조선시대주택 마당에 관한 연구』, 환경과 조정, 1985.11
10. <http://www.seoul.go.kr>
11. <http://100.naver.com/100.phpid=58113>